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치와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  
: 갈등적 독립의 매개효과

2020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이 수 빈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치와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  
: 갈등적 독립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김 동 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상담 전공  
이 수 빈

이수빈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가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과 정적 상관을 갖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둘째,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와 심리적 부적응 간의 관계가 갈등적 독립에 의해 매개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생(N=271)을 대상으로 설문 연구를 실시하였다. 한국판 부모기대 부응 척도(K-LPEI), 대학생활 적응 척도(SACQ)의 개인-정서적응 문항, 심리적 독립 척도(PSI)의 갈등적 독립 문항, 한국판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단축형(K-MC-13)이 사용되었다. 이후,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매개효과 분석이 실시되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부모기대와 실제자기의 차이가 크다고 지각할수록 대학생활에서 높은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였다. 부모기대만을 독립변인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심리적 부적응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부모기대와 실제자기의 불일치가 대학생의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갈등적 독립에 의해 완전 매개되었다. 즉,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치를 크게 지각하는 학생들은 갈등적 독립 수준을 낮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는 다시 대학생활에서의 높은 심리적 부적응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가 부모에 대한 원망, 죄책감, 분노 등의 갈등적 정서를 유발함으로써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상담 실제에 갖는 함의를 밝히고, 후속 연구에 관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모 기대와 연관된 심리적 부적응을 호소하는 내담자의 경우, 상담사는 부모 기대와 실제 자기에 대한 지각을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상호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러한 불일치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치로 인해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는 내담자의 경우, 상담사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개별화를 촉진하는 등 부모에 대한 갈등적 정서를 감소시키는 상담 개입을 실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후속연구로는 오랜 기간 부모 기대에 과잉 부응하고 있는 자녀 혹은 높은 부모의 기대에 계속해서 부응하고 있는 자녀 등 특수집단에 대한 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문화권의 대학생들의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도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학업이나 진로 영역 외에, 자녀의 연애 관계에 관한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서도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심리적 분리 뿐 아니라, 상호간 이해와 수용, 높은 친밀감을 경험하는 성숙한 부모자녀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치의 인과적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대학생, 부모, 기대, 갈등적 독립, 심리적 부적응

**학 번** : 2018-22213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7
II. 이론적 배경 .....	8
1. 자기-불일치 .....	8
1.1. Higgins의 자기-불일치 이론 .....	8
1.2. 자기-불일치 이론에 대한 경험적 증거 .....	10
1.2. 자기-불일치 이론과 부모기대 .....	11
2. 부모로부터의 개별화 .....	16
2.1. 1차 개별화 .....	16
2.2. 2차 개별화 .....	16
2.3. 갈등적 독립 .....	18
2.4. 개별화와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 .....	20
III. 연구 방법 .....	21
1. 연구 대상 .....	21
2. 연구 절차 .....	24
3. 연구 도구 .....	26
3.1. 부모기대와 실제 자기의 불일치 .....	26
3.2. 대학생생활에서의 심리적 적응 .....	28
3.3. 갈등적 독립 .....	29
3.4. 사회적 바람직성 .....	31
4. 연구 결과 .....	32
3.4. 기술통계 .....	32

3.4. 상관 및 회귀분석 .....	33
3.4. 매개분석 .....	34
<b>V. 결론 및 제언 .....</b>	<b>36</b>
1. 결과 요약 .....	36
2. 함의 .....	36
3.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	37
<b>참고문헌 .....</b>	<b>41</b>
<b>부    록 .....</b>	<b>52</b>
부록 1.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지 .....	53
부록 2. 한국판 부모기대 부응 척도 .....	56
부록 3. 대학생활 적응 척도 중 개인-정서적응 문항 .....	60
부록 4. 심리적 독립척도 중 갈등적 독립 문항 .....	61
부록 5. 한국판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단축형 .....	63
<b>Abstract .....</b>	<b>64</b>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각된 부모기대와 실제자기의 불일치’가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적응’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매개요인으로 ‘갈등적 독립’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 설계 과정에서 주요 기반이 된 이론은 자기불일치 이론과 대상관계이론이다. 이를 통하여 부모기대와 관련하여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대학생 내담자에게 적합한 상담 개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대학생들의 심리적 부적응은 대학 상담 센터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문제는 학생 개인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 교육의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과 관련되어 있다(김계현, 황매향, 선혜연, 김영빈, 2005). 특히, 여러 적응 영역 중 심리 영역에서의 부적응은 20대의 자살과 연관성이 높으며(전홍진, 배주미, 우종민, 2013), 개인 상담을 신청하기 위해 대학 상담 센터에 방문한 내담자들이 가장 많이 보고하는 호소 문제이다(서울대학교, 2007). 또한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대학 재학 중 1번 이상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심리적 부적응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부적응 요인 중 하나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금명자, 남향자, 2010)에서 응답자의 85.40%는 최근 3개월 간 외로움, 불안, 우울 및 무기력, 분노, 자살충동 중 1개 이상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중 50% 이상(전체 응답자 중 23.02%)은 3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부정적 정서 상태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둘째로, 부모의 기대는 대학생의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대학교 신입생 중 51.4%는 현재 가정 문제를 겪고 있



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중 43.0%는 가정 문제 중 ‘가족의 간섭 및 통제’를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하였다(오은정, 김민선, 정소라, 2015). 서울대학교 대학상담센터 내담자의 14.9%도 ‘가족문제’를 호소하며 상담소에 내방하였으며, 두 번째로 많이 호소한 ‘학업/진로문제’ 역시 부모의 지나친 기대 또는 심리적 독립의 부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서울대학교, 2007).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자살 사고를 보고한 연구 참여자 중 14.97%가 이러한 생각이 가정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금명자, 남향자, 2010).

특히, 부모기대 그 자체가 아닌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에 대한 지각이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Higgins는 자기-불일치 이론(Self-Discrepancy Theory; Higgins, 1987)을 통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실제 모습과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타인(significant others)이 나에게 대해 바라는 모습이 불일치하는 경우,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어 심리적 어려움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Moretti와 Wiebe(1999), 그리고 Moretti와 Higgins(1999)는 개별기술적 접근법을 통해 부모가 바라는 모습과 실제 자신의 모습이 불일치할수록 청소년기 및 초기 성인기 여학생이 더 많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보인 바 있다. 이후 설문지 연구를 통해서도 부모기대와 실제자기의 불일치는 대학생 자녀의 우울과 불안(Wang & Heppner, 2002; Agliata & Renk, 2009), 낮은 자기 가치감 및 학교생활 부적응(Agliata & Renk, 2008), 낮은 삶의 만족(Oishi & Sullivan, 2005)과 유의한 상관을 갖는다는 점이 드러났다. 특히,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 Arnett, 2014)에 해당하는 대학생 자녀에게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는 더욱 중요한 정서적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시기가 부모와 독립된 정체성을 형성하는 2차 개별화 과업을 수행하는 시기이며(Blos, 1979; White, Speisman, & Costos, 1983; Smollar & Youniss, 1989), 따라서 아직 부모의 기준 중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Grotevant와 Cooper(1985), 그리고 Schachter와

Ventura(2008) 역시 중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s)로서의 부모가 제공하는 자기-관련 피드백이 성인진입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부모기대 그 자체가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 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충된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다(허묘연, 2000; 이웅택, 이은경, 2012; 정소희, 이경희, 2016). Wang과 Heppner(2002)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기대 자체 보다는 부모기대와 자기수행의 차이가 자녀의 심리적 고통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유사한 연구 결과가 Agliata와 Renk(2008, 2009)의 연구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났다.

셋째로,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치와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제 3의 변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대두되었다. 우선,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치만으로는 대학생의 심리적 부적응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도형, 김예은, 유소영, 김명선, 박미정, 연규진(2018)의 연구에서,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를 크게 지각하면서도 삶에 만족하는 대학생들은 삶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들과는 달리 부모에 대한 죄책감, 원망 등의 갈등적 정서를 거의 보고하지 않았다. 이는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치의 효과만을 보는 것은 대학생들의 삶의 만족을 이해하는데 충분하지 않으며, 다른 설명변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상담 장면에서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치를 완화시키는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상호성을 증진시킴으로써 비합리적인 지각을 현실적인 것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Agliata & Renk, 2008), 실제로 존재하는 부모기대와 실제자기의 불일치를 부인하거나 부모에게 책임을 돌리기만 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Yalom(1980)은 자신의 책임을 수용하는 것이 심리치료의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실재하는 불일치로 인해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대학생 내담자에게 적합한 상담 개입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변인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 3의 설명변인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성인 진입기의 핵심

적 발달 과업 중 하나인 2차 개별화 과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별화(individuation)’는 처음 Mahler(1963; Mahler, Pine, & Bergman, 2000 재인용)에 의해 제안된 개념으로, 양육자와 구분되는 자신의 개별적 특성들을 성취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후 여러 연구자들은 이와 유사한 과정이 청소년기(Blos, 1967)와 초기 성인기(White, Speisman, & Costos, 1983; Hoffman, 1984)에도 발생하며, 이를 ‘2차 개별화(second individuation)’라고 명명하였다. 2차 개별화는 자녀가 부모와 구별된 자신의 기준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후기 청소년과 성인 진입기 자녀의 심리적 발달과 건강에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Blos, 1979; White, Speisman, & Costos, 1983; Smollar & Youniss, 1989). 심지어 몇몇 연구자들은 초기 성인기에 나타나는 많은 심리적 문제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개별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표면화된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였다(Fulmer, Medalie, & Lord, 1982; Austin & Inderbitzin, 1983; Hoffman, 1984; Lopez, Campbell, & Watkins, 1986). Blos(1967) 역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행동화, 학습 장애, 목표의 부재, 지연 행동, 우울한 기분, 부정주의 등의 문제가 분리·개별화의 위기나 실패를 보여주는 증상적 신호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개별화는 단일 차원이 아닌 여러 하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Hoffman(1984)은 부모로부터 개별화되지 못한 자녀는 태도, 기능, 정서의 세 측면에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을 수 있으며, 부모에 대한 정서적 의존은 그 정서가(valence)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다시 두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 대한 원망, 죄책감, 분노 등의 갈등적 정서에 얽매어있는 상태를 ‘높은 갈등적 의존(conflictual dependence)’ 또는 ‘낮은 갈등적 독립(conflictual independence)’으로 지칭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부모로부터 개별화되지 못한 자녀들이 분노와 적개심, 거절감, 죄책감 등의 감정으로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덮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Boszormenyi-Nagy와 Spark(1973; Hoffman, 1984 재인용)의 논의

를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갈등적 정서에 얽매인 상태, 즉 ‘갈등적 독립의 실패’는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치와 관련되면서도,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과 일관된 연관성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변인이다.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치 지각이 낮은 갈등적 독립을 유발하고, 이것이 다시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Higgins(1987)는 자기-불일치 이론을 바탕으로 ‘부모와 같은 중요한 타인이 내게 바라는 모습’과 ‘실제 나의 모습’ 간의 차이가 죄책감이나 불안 등의 초조-관련 정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Blos(1967)는 후기 청소년들이 자신의 단점이나 실망스러운 부분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부모나 사회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아직 충분히 개별화되지 않은 대학생 자녀는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치 지각으로 인해 경험하게 된 죄책감,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부모에게 책임을 돌림으로써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 실제로 이도형 등(2018)의 연구에서,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를 크게 지각하면서 삶에 불만족하는 대학생들은 부모에 대한 원망이나 죄책감을 자주 보고하는 등 낮은 갈등적 독립 수준을 시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치로 유발된 갈등적 의존 상태는 대학생 자녀에게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 낮은 갈등적 독립은 대학생의 심리적 어려움 및 적응 관련 변인과 일관되게 유의한 상관을 보여왔다(e.g., Hoffman, 1984; Hoffman & Weiss, 1987; Lopez, Campbell, & Watkins, 1988; Lapsley, Rice & Shadid, 1989; Rice, Cole, & Lapsley, 1990; Friedlander & Siegel, 1990; Rice, 1992; Haemmerlie, Steen, & Benedicto, 1994). 국내 연구에서도 갈등적 독립과 자녀의 대학생활 적응(정은희, 1992; 이기학, 김영린, 2012), 그리고 갈등적 독립과 자녀의 자기성장 주도성(이기학, 김영린, 2012) 간 상관이 유의하였다. 한국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 역시 갈등적 독립과 대학생활 적응 간에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Choi,

2002).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였을 때,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는 부모에 대한 낮은 갈등적 독립을 유발함으로써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성인 진입기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가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 더 나아가 둘의 관계를 설명하는 매개변인으로 ‘갈등적 독립’을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문연구를 통해 해당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및 ‘갈등적 독립’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이전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상담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모든 통계적 분석 과정에서 사회적 바람직성 (social desirability)의 영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Fisher와 Katz(2000)는 자기보고식 설문지가 측정하는 개념이 자기존중과 자기만족,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는 것, 다른 사람과 따뜻한 관계를 맺는 것 등의 가치를 담고 있을 경우, 응답 과정에서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들은 본 연구의 모든 주요 변인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갈등적 정서나 대학생활 심리적 적응 요인은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바람직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Silverthorn & Gekoski, 1995). Agliata와 Renk(2008) 역시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를 탐색하는 모든 연구에서 항상 사회적 바람직성 요인을 고려해야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와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 간의 상관관계가 갈등적 독립에 의해 매개되는가?” 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탐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가 크다고 지각할수록 한국 대학생들은 대학생활에서 높은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할 것이다.

가설 2.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와 한국 대학생의 심리적 부적응 간의 관계는 갈등적 독립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자기-불일치

#### 1.1. Higgins의 자기-불일치 이론

Higgins는 자기-불일치 이론(Self-Discrepancy Theory; Higgins, 1987)을 통해, 자기표상 간의 불일치가 불편한 정서 상태를 야기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자기-불일치 이론의 기본 개념과 가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표상은 영역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자기표상의 기본 영역은 세 가지로, (a) 실제 자기(actual self), (b) 이상적 자기(ideal self), (c) 의무적 자기(ought self)가 바로 그것이다. ‘실제 자기’는 실제로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 특성들에 대한 표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상적 자기’는 이상적으로 갖길 바라는 특성들에 대한 표상으로, ‘의무적 자기’는 의무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특성들에 대한 표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자기표상은 관점에 따라서도 구분될 수 있다. 자기표상의 관점은 (a) 자신의 개인적인 관점(your own personal standpoint), 그리고 (b) 중요한 타인의 관점(the standpoint of some significant other)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타인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형제자매나 배우자,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으며, 어떤 타인의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 자기 표상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같은 중요한 타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머니가 바라본 나’와 ‘친구가 바라본 나’에 대한 자기표상이 다를 수 있다.

셋째, 자기표상은 영역과 관점에 따라 6가지 종류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자기개념’과 ‘자기안내’로 분류될 수 있다. 자기 개념의 영역과 관점에 따라 가능한 자기표상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실제/자기(actual/own), 실제/타인(actual/other), 이상/자기(ideal/self), 이

상/타인(ideal/other), 의무/자기(ought/self), 의무/타인(ought/other). 이때, ‘내가 바라본 실제 나’ (실제/자기)와 ‘타인이 바라본 실제 나’ (실제/타인)는 일반적으로 ‘자기개념(self concept)’을 의미한다. 그 외의 네 가지 자기표상들은 ‘자기안내(self-guides)’라고 지칭되는데, 이는 해당 표상들이 도달하고 싶거나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기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자기-지시적(self-directive)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안내와 일치하는 상태에 도달하려는 동기를 갖는다고 가정된다.

넷째, 자기표상 간의 불일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종류의 부정적 심리상태가 야기되며, 각각의 부정적 심리상태는 특정한 정서/동기적 문제와 관련된다. 부정적인 심리상태는 기본적으로 (a) 낙담 관련 정서(dejection-related emotions; 불만족, 실망, 슬픔 등)를 유발하는 ‘긍정적 결과의 부재’ 상태와 (b) 초조 관련 정서(agitation-related emotions; 두려움, 위협감, 초조함 등)를 유발하는 ‘부정적 결과의 존재’ 상태로 구분될 수 있다. 예컨대, ‘실제/자기(actual/own)’와 ‘이상/자기(ideal/own)’의 불일치는 나의 소망과 욕구를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긍정적 결과의 부재’ 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상태에서는 실망이나 불만족, 또는 욕구 충족의 실패로 인한 좌절감이 경험될 수 있다. 한편, ‘실제/자기(actual/own)’와 ‘의무/자기(ought/own)’의 불일치는 자기처벌을 예측하게 함으로서 ‘부정적 결과의 존재’ 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상태에 놓인 개인은 죄책감, 자기경멸, 불안감의 정서에 취약해질 수 있다.

다섯째, 자기표상 간의 불일치가 불편한 정서 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은 자기-불일치의 이용가능성(availability)과 접근성(accessibility)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자기-불일치의 이용가능성은 불일치의 크기나 정도가 클수록 증가한다고 가정된다. 또한, 자기-불일치의 접근성은 해당 불일치가 최근에 의식에서 활성화된 적이 있거나, 이전에 자주 활성화되었거나, 혹은 자기-불일치를 활성화시킬 만한 명백한 상황적 단서가 존재할 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1.2. 자기-불일치 이론에 대한 경험적 증거

Higgins(1987)가 자기-불일치 이론을 제안한 이후, 지금까지 해당 이론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경험적 연구가 실시되었다. 특히, 자기-불일치 지각과 심리적 부적응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다양한 측정 도구를 사용한 여러 경험적 연구를 통해 자기-불일치가 부정적 정서에 대한 취약성을 유발한다는 가설이 지지되었다(e.g., Higgins, Klein, & Strauman, 1985; Strauman & Higgins, 1987, 1988; Strauman, 1989; Strauman, 1992; Scott & O' Hara, 1993). 예컨대, 같은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더라도 우울 삽화를 보이는 환자는 조증 삽화를 보이거나 증상이 진정된 상태의 환자에 비하여 높은 자기-불일치를 보였다(Bentall, Kinderman, & Manson, 2005). 또한 Kinderman과 Bentall(1996)의 연구에서, 정신과적 진단을 받지 않은 통제 집단은 우울증 또는 편집증 환자 집단에 비해 자기표상들 간에 더 높은 일관성을 보였다. 즉, 통제집단은 환자집단에 비해 스스로의 관점에서 바라본 자신의 모습(actual/own)이 자신의 이상적 또는 의무적 자기(ideal 또는 ought/own)와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높았으며, 부모가 바라보는 나(actual/parental) 역시 자신이 생각하는 나(actual/own)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상적, 의무적 자기에 더하여,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지만 언젠가 그러한 모습이 될 것 같은' 모습을 의미하는 '두려운 자기(feared self)' 또는 '바라지 않는 자기(undesired self)' 역시 실제적 자기에 근접하는 경우 불안이나 죄책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arver, Lawrence, & Scheier, 1999).

한편, 자기-불일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부정적 정서가 야기되는지에 관하여서는 연구 결과가 혼재되어 나타났다(Tangney, Niedenthal, Covert, & Barlow, 1998; Carver, Lawrence, & Scheier, 1999). 예컨대, 우울장애 환자와 불안장애 환자, 그리고 정신장애 진단을 받지 않은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된 실험 연구(Strauman, 1992)에서는,

어떤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불일치 유형별 불일치의 크기가 달랐으며, 제시되는 자극이 어떤 유형의 불일치를 유발하는지에 따라 기분이나 각성 수준의 변화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연구를 실시하였을 때에도(Strauman & Higgins, 1988), 실제적-이상적 자기 불일치는 낙담, 좌절감, 자신에 대한 분노와 상관을 보인 반면, 실제적-의무적 자기 불일치는 초조, 타인에 대한 분노, 억울함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국내에서도 이상철, 정상원, 김새로미, 이혁준의 연구(2008)에서 의무적-실제적 자기 불일치는 불안, 이상적-실제적 자기 불일치는 우울을 유발할 수 있음이 지지된 바 있다. 반면, Tangney 등(1998)의 연구에서는 실제적-이상적 자기 불일치와 의무적-이상적 자기 불일치 모두 우울 및 불안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되는 정서가 자기-불일치 유형에 따라 구분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자기-불일치는 부정적 정서 외의 심리적 부적응 관련 변인들과도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Hanlon, Hofstaetter, 그리고 O' Connor(1954)의 설문 연구에서, 실제적-이상적 자기의 불일치는 고등학생의 적응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실제적-이상적 자기의 불일치는 낮은 자존감과 관련되었으며, 이러한 상관은 '성격은 고정되어 있으며 변할 수 없다' 또는 '성격은 바뀔 수 있다'는 신념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Renaud & McConnell, 2007). '부모가 생각하는 나(actual/parental)'와 '내가 생각하는 나(actual/own)'의 불일치 역시 대학생 자녀의 낮은 자존감 및 높은 신경증 성향과 관련되었다(Campbell, Assanand, & Paula, 2003).

### 1.3. 자기-불일치 이론과 부모 기대

자기-불일치 이론은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한다고 생각되는 모습'과 '자녀가 생각하기에 실제 자기의 모습'이 불일치하는 경우, 부정적 심리상태가 야기되어 우울, 불안 등의 정서에 취약해질 수 있음을 지지한다. 자기-불일치 이론에 근거하여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가 자

녀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모가 나에게 이상적으로 바라는 모습(ideal/other)과 자녀가 생각하는 실제 나의 모습(actual/own)이 불일치하는 경우, 이는 수치심이나 우울과 같은 낙담 관련 정서(dejection-related emotion)를 유발할 수 있다. 반면, 부모가 자녀에게 의무로서 요구한다고 생각되는 모습(ought/other)과 자녀가 생각하는 실제 나의 모습(actual/own)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예상하여 두려움과 같은 초조 관련 정서(agitation-related emotion)가 유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Clark, Beck, 그리고 Brown(1989)은 실패에 대한 생각은 불안이 아니라 우울만을, 위협에 대한 생각은 불안이 아니라 우울만을 예측한다는 점을 보인 바 있다.

다음으로,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함으로써 자기-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자녀에게 부정적 정서를 야기할 수 있다.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 혹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책임이나 의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e.g., Freud, 1923/1961; Horney, 1942; Rogers, 1961; Wang & Heppner, 2002 재인용). 그리고 내가 바라본 자기(actual/own)가 내가 생각했을 때 갖고 있었으면 하는 이상적 특성(ideal/own)이나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는 의무적 특성(ought/own)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각각 낙담 관련 정서(dejection-related emotion), 그리고 죄책감이나 불안과 같은 초조 관련 정서(agitation-related emotion)가 유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Moretti와 Higgins(1999)은 부모의 기준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한 경우에만,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가 자녀의 정서적 고통 및 대인관계 문제를 예측한다는 점을 보인 바 있다.

특히,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는 자녀가 아동일 때뿐 아니라 청소년기, 성인 진입기에 도달하였을 때에도 자녀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s)로서의 부모가 제공하는 자기-관련 피드백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진입기

로의 전환 과정에서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Grotevant & Cooper, 1985; Schachter & Ventura, 2008).

실제로 여러 경험적 증거들은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가 자녀에게 심리적 부적응을 유발할 수 있음을 지지한다. Moretti와 Wiebe(1999), 그리고 Moretti와 Higgins(1999)는 개별기술적 접근법을 활용하여 부모의 이상적 혹은 의무적 자기와 실제 자기의 불일치가 딸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였다. 예컨대, 청소년기 여학생은 부모가 자신에게 바란다고 생각되는 모습(ideal/parental 및 ought/parental)과 실제 자기(actual/own)가 불일치할수록 더 많은 외현화(비행 및 공격적 행동) 및 내현화(불안, 우울, 사회적 철수, 신체적 불만) 문제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다(Moretti & Wiebe, 1999). Oishi와 Sullivan(2005)이 일본과 유럽계 미국인 대학생들에게 삶의 4가지 주요 영역에 대하여 자신이 부모의 기대에 충족하고 있는지 질문했을 때에도, 부모기대 충족 수준은 대학생 자녀의 삶의 만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후, Wang과 Heppner(2002)는 부모기대와 자기수행을 각각 평정하여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도구, 즉 부모기대 부응 척도(Living up to Parental Expectation: LPEI)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진들은 해당 척도를 활용하여 부모의 기대 자체 보다는 부모기대와 자기수행의 차이가 대만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고통과 관련이 있음을 보였다. 즉, 부모가 기대하는 자신의 모습과 실제 자신의 수행 수준 간의 차이를 크게 지각할수록 대만 대학생들은 우울과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더 크게 경험하였다. 이후, 연구 참여자의 80%가 백인이었던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같은 연구를 실시하였을 때에도 비슷한 결과가 반복 제시되었다(Agliata & Renk, 2009).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는 정서적 고통 외에도 낮은 자기 가치감 및 학교생활 부적응과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Agliata & Renk, 2008).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기대와 실제자기의 불일치를 높게 지각하는 대학생 자녀들은 진로수행 회피목표를 지향하는 부적응적인 진로 행동을 보였다(이기세,

이수정, 연구진, 2018).

특히, 우리나라의 부모-자녀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치는 서구 문화권의 자녀보다 우리나라의 자녀에게 더욱 큰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자녀 간 동일체 의식이 강조되는데(류정현, 2007), 이는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자신의 기쁨과 슬픔으로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녀의 실수나 잘못은 부모에게, 더 나아가서는 가족이나 가문에 누를 끼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타인과 조화롭고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시된다(최인재, 2006). 이러한 경향은 개인의 독특성이나 개성을 발달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서구 문화와는 구분된다. 그리고 Shek과 Chan(1999)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은 유교 문화권에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filial piety, 孝) 그리고 부모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자녀가 지켜야할 매우 중요한 행동 덕목 중 하나이다. 실제로 같은 연구(Shek & Chan, 1999)에서 ‘이상적인 자녀’에 대한 홍콩 학부모의 생각을 탐색하였을 때, 60% 이상의 연구 참여자는 이상적 자녀의 특성으로 가족-관련 특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해당 범주에는 좋은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예, “부모와 소통하는 것”)과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예, “집안일을 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요컨대, 부모-자녀 간 동일체 의식, 관계주의, 효(孝)를 강조하는 유교문화는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치를 지각하는 상황에서 자녀가 더 높은 심리적 부담을 경험하도록 기여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로, 부모의 과잉 기대에 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갖는 기대가 매우 높은 경우,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모의 과잉 기대는 여러 문헌에서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 관련 요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과잉 기대는 자녀의 스트레스(박은희, 2003; 장지희, 2010; 신동우, 유계숙, 2012; 장신애, 2016), 낮은 주관적 안녕감(안도희, 김유리, 2012), 낮은 진로결정 효능감(이재림, 전예지, 2014), 진로결정 어려움(정예지,

유계숙, 2015), 낮은 자아존중감 및 진로결정자율성(정혜연, 2009)과 관련되었다. 예컨대, 부모가 자신에 대해 높은 진로 기대를 갖고 있다고 지각하는 대학생들은 더 높은 학업 스트레스를 보고하였다(신동우, 유계숙, 2012). 또한 부모가 자녀의 학업 성취에 대해 높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중학생 자녀는 낮은 주관적 안녕감을 나타내었다(안도희, 김유리, 2012).

이에 대해 상충하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허모연(2000)과 이용택, 이은경(2012)의 연구에서, 부모의 과잉 기대는 과잉 간섭과 달리 중고등학생 자녀의 정신병리를 시사할 수 있는 문제행동 요인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정소희와 이경희(2016)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과잉 기대는 중학생 자녀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김중백과 김준엽(2009)의 연구에서, 부모의 교육적 기대는 그것이 자녀의 학업적 이해도를 높이거나 긍정적인 학업적 자아개념을 높이는 경우에는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다른 연구에서도, 부모의 학업 기대는 중학생 자녀의 자기효능감(박영신, 박영균, 김의철, 한기혜, 2011), 고등학교 3학년 자녀의 수학적 자아-효능감 및 수학성취도와 정적 상관을 보이는 등(임선아, 2012) 긍정적인 적응 요인들과 관련되었다. 신중호, 진성조, 김연제(2010)의 연구에서는, 학업성취 상위, 하위 집단에 따라 부모의 성취 기대가 자녀의 자기결정성 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 연구들에서 부모기대와 실제자기의 불일치 수준이 아니라 부모의 기대 수준만을 살펴보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Wang과 Heppner(2002)는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가 아닌 부모기대만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을 때 해당 변인이 자녀의 우울과 불안, 분노 수준을 모두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였음을 보고한 바 있다.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Agliata와 Renk(2008, 2009)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반복해서 나타났다.

## 2. 부모로부터의 개별화

### 2.1. 1차 개별화

‘분리-개별화 과정(separation-individuation)’은 생애 초기 3년 동안 나타나는 심리 내적 과정(Mahler, Pine, & Bergman, 2000)으로, 정신분석 이론가들에 의해 처음 이론적으로 개념화되었다(Mahler, 1963; Mahler, Pine, & Bergman, 2000 재인용). 이중 ‘분리(separation)’는 양육자와 분리되지 않고 융합된 상태를 의미하는 공생(symbiosis)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Mahler et al., 2000). 그리고 ‘개별화(individuation)’는 양육자와 구분되는 자신의 개별적 특성들을 성취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Mahler et al., 2000). 이때, 아동이 성공적으로 분리-개별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와 상관 없이 좋은 부모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유지할 수 있는 대상항상성 및 자기항상성을 발달시키는 것이 핵심적이다(Mahler et al., 2000).

한편, 1차 개별화 과업을 완수한 이후에도 여전히 부모는 유아와 아동의 삶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동의 행동적인 자율성은 증가할지 몰라도,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과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자기-지각은 모두 내면화된 부모 표상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Kroger, 2004; Koepke & Denissen, 2012 재인용).

### 2.2. 2차 개별화

부모와 구별된 자신의 기준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와 성인 진입기에 2차 개별화 과업을 완수하는 것이 필요하다(Blos, 1979; White, Speisman, & Costos, 1983; Smollar & Youniss, 1989). Blos(1979)는 청소년기에 2차 개별화 과정을 거침으로써만이 내면화된 유아기 대상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분리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기 인지발달 단계를 고려하였을 때에도 자연스러운 것인데, 왜냐하면 해당 시기에는 비판적인 자기 관찰능력 및 현실 검증 능력이 발달하면서 양육자의 관점과 구분되는 자신의 의견

을 형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과거의 유아기적 자아를 포기하게 되면 더 이상 부모 자아에 의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급격한 성격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고, 목표의 부재나 우울 등의 정신 병리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Blos, 1979). 예컨대, 초기의 자아 상태로 퇴행하면서 초기 대상관계 문제가 재현되거나 부모와의 갈등, 과거에 해결되지 않고 미해결되었던 심리적 어려움이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유아기적 대상의 상실은 자아를 궁핍하게 만들기 때문에 끊임없이 강력한 자극을 추구하거나 또래 집단에 깊이 의존하는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또는, 부모로부터 개별화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거리를 두기만 함으로써(예, 부모가 원하는 것의 반대로만 행동) 개별화 과업을 회피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때, 자녀가 부모로부터 개별화되고 분리되는 것만이 가장 이상적이고 최종적인 부모-자녀 관계는 아님에 주의해야한다. White, Speisman, 그리고 Costos(1983)는 성숙한 부모-자녀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개별화(individuation) 뿐 아니라, 관점 수용 능력(perspective taking)을 함양하고, 타인과 민주적이면서 균형 잡힌 상호작용(mutuality)을 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Smollar와 Youniss(1989) 역시 개별화에는 분리(separation) 외에도 자기 의견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는 것(self-assertion, 자기-주장), 부모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mutuality, 상호성), 부모의 관점을 수용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permeability, 수용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실제로 같은 연구자들이 후기 아동기에서 초기 성인기 자녀를 대상으로 인터뷰 연구를 진행하였을 때(Smollar & Youniss, 1989), (a) 부모의 말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 (b) 부모도 인간적 욕구와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는 탈-이상화(de-idealisation), (c) 부모를 '장단점을 모두 갖고 있는 한 명의 인간'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순서대로 나타났다. Mazor와 Enright(1988)의 인터뷰 연구에서도, (a) 청소년기 초기에는 자기-자각이 증가하고 부모 관점의 영향이 감소하다가, (b) 청소년기 중기에 자율적 자기와 부모의 관점 간의 갈등이 두드러지고, (c) 후기 청소년기



(초기 성인기)에는 자신의 개별성을 잃지 않으면서 자기 시스템 안에 부모의 관점을 통합시킬 수 있게 된다는 점이 관찰되었다. 행동적 자율성에 대한 부모-자녀 간의 의견 차이 역시 청소년기 초기에 가장 두드러졌다가,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Smetana & Asquith, 1994; Collins, Laursen, Mortensen, Luebker, & Ferreira, 1997). 부모-자녀 간 갈등도 청소년기 중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다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딸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사랑 역시 청소년기 중기로 갈수록 감소하다가 후기로 갈수록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De Goede, Branje, & Meeus, 2009). 즉, 가장 성숙한 부모-자녀 관계에서는 개별성(individuality)과 연결(connectedness)이 모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Grotevant & Cooper, 1985).

한편,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에 나타나는 심리적 부적응은 많은 경우 부모로부터 개별화되는 것의 어려움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이는 2차 개별화가 청소년에서 성인 진입기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발달 과업임을 암시한다. 예컨대, Austin과 Inderbitzin(1983)은 자율성 욕구를 자각하거나 주장하지 못하는 대학생들 대부분이 2차 분리-개별화 과정에서의 위기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개별화 과정에서 아동기에 이상화하고 복종하였던 내적 대상을 상실하면서, 여자친구와 같은 새로운 대상에 의존하게 될 수 있고, 이것이 자율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Fulmer와 Medalie, Lord(1982)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집을 떠나게 된 아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하여, 정신분석이론과 가족체계이론, 그리고 성인발달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즉, 가족 구성원의 심리사회적 발달 수준에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자녀의 개별화를 방해할 수 있고, 이것이 여러 영역에서의 대학생활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2.3. 갈등적 독립

개별화는 단일 차원이 아닌 여러 하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Hoffman(1984)은 부모로부터의 개별화가 태도, 기능, 정서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개별화는 그 정서가(valence)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다시 두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중 ‘부모에 대한 과도한 죄책감과 불안, 불신, 책임감, 억압, 원망,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갈등적 독립(conflictual independence)’으로 지칭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부모로부터 개별화되지 못한 자녀들이 분노와 적개심, 거절감, 죄책감 등의 감정으로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덮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Boszormenyi-Nagy와 Spark(1973; Hoffman, 1984 재인용)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다. Blos(1967) 역시 후기 청소년들이 자신의 단점이나 실망스러운 부분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부모나 사회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부모를 원망하거나 사회에 분노하는 등 갈등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

갈등적 독립은 자녀의 심리적 어려움 및 적응 관련 요인들과 일관된 상관을 보여왔다(e.g., Hoffman, 1984; Hoffman & Weiss, 1987; Lopez, Campbell, & Watkins, 1988; Lapsley, Rice & Shadid, 1989; Rice, Cole, & Lapsley, 1990; Friedlander & Siegel, 1990; Rice, 1992; Haemmerlie, Steen, & Benedicto, 1994).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은 반복해서 자녀의 대학생활 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Hoffman, 1984; Lopez, Campbell, & Watkins, 1988; Albert, 1989; Lapsley, Rice & Shadid, 1989; Rice, Cole, & Lapsley, 1990; Rice, 1992; Haemmerlie, Steen, & Benedicto, 1994; Palladino & Blustein, 1994; Beyers & Goosens, 2003).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갈등적 정서는 자녀의 연애 문제(Hoffman, 1984), 식이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인지적 특성(Friedlander & Siegel, 1990), 높은 알코올 섭취량(Haemmerlie, Steen, & Benedicto, 1994)과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는 갈등적 독립과 자녀의 대학생활 적응(정은희, 1992; 김영린, 이기학, 2012), 그리고 갈등적 독립과 자녀의 자기성장 주도성(김영린, 이기학, 2012) 간 상관이 유의하였다. 한국계 미국인을 대상으

로 실시된 연구에서도, 갈등적 독립과 대학생활 적응 간에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Choi, 2002). 갈등적 독립을 포함한 심리적 독립의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높은 심리적 독립 수준은 중학생 자녀의 진로 성숙, 고등학생 자녀의 진로결정 수준 또는 진로준비 행동, 대학생 자녀의 진로결정 수준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임, 김창대, 2009).

#### 2.4. 개별화와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

부모로부터의 개별화는 내면화하였던 부모 기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므로써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치가 갖는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Moretti & Higgings, 1999)에서, 부모의 기준을 자녀가 자신의 것으로 채택하지 않은 경우,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가 자녀의 일상적 생활기능 수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유의수준 이하로 감소하였다. 반면, 자녀가 부모의 기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경우에는,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가 자녀의 정서적 고통 및 대인관계 문제를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부모와 공유하는 기준(identified self-guides, 동일시된 자기-안내)은 ‘진정한 자기(true self)’의 핵심과 관련되지만, 자신의 것으로 채택하지 않은 부모의 기준(introjected self-guides, 내사된 자기-안내)은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제안하였다.

국내에서도 부모로부터 개별화되는 경우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의 부정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음을 지지하는 연구가 있었다. 이도형 등(2018)의 질적 연구에서, 부모기대-실제자기가 불일치하지만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대학생은 부모에 대한 갈등적 정서를 드물게 보고하거나 거의 보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에 대한 갈등적 정서 경험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충분히 개별화되지 못하였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모기대-실제자기가 크게 불일치하더라도 자녀가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보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부모로부터 충분히 개별화되어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 참여자는 부모 중 최소 한 명 이상 생존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학부생으로, 온라인 안내문을 읽어본 뒤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하도록 안내되었다. 전체 응답자 184명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1명), 부모 모두와 왕래가 없고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응답한 경우(3명), 하나라도 빠트린 문항이 있는 경우(6명), 그리고 해외 대학에 다니는 경우(3명)는 분석에서 제외되어 총 171명의 응답 자료가 최종 분석에 투입되었다. 한편, Arnett(2014)은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를 만 18세에서 25세로 제안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만 27세까지 본 연구에 포함시켰다. 이는 의무적으로 2년간 평균 복무를 해야 하는 우리나라 남성의 특이성을 고려한 것이다. 군복무는 대학 졸업을 비롯한 사회진출 시기를 늦춤으로써 남성의 성인 진입기를 연장시킬 수 있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 집단의 평균 나이는 만 21.34세(SD=2.00)였으며, 남자는 109명(40.22%), 여자는 162명(59.78%)이었다.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대부분 2020년 1학기에 등록하여 학교를 다니고 있는(83.76%) 4년제 대학교 학생이었다(93.73%). 학교소재지는 서울·인천·경기도가 174명(64.21%)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세종·충청도가 50명(18.4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울산·대구·부산·경상도는 38명(14.02%)이었고, 광주·전라도는 8명(2.95%), 강원도는 1명(0.37%)이었다. 전공은 공학(90명), 경영학(43명), 사회과학(39명), 인문학(28명), 자연과학(23명), 사범대학(14명), 예체능(12명), 의학(7명), 간호학(6명), 생활과학(5명), 농업생명과학(4명), 약학(3명) 순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에 응답한 학생은 18명이었다(복수응답 가능). 학년은 1학년 53명(19.56%), 2학년 79명(29.15%), 3학년 60

명(22.14%), 4학년 76명(28.04%), 5학년 이상 3명(1.11%)이었다.

표본 집단의 부모 관련 사항을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 아버지(98.90%)와 어머니(99.26%)가 생존하고 있으며 두 분이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다(93.73%)고 응답하였다. 부모가 함께 살고 있다는 응답은 79.36%, 직장 등의 이유로 휴일마다 함께 지낸다는 응답은 10.70%였다. 부모와의 동거 여부를 물었을 때, 현재 부모 중 한 명 이상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이었으며(67.16%), 기숙사, 자취 등 부모 모두와 떨어져 살고 있다는 응답은 32.84%였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물었을 때에는, 부모가 학비 및 생활비를 모두 지원해주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73.43%), 부모가 1/2이상 지원해주고 있다(12.92%), 부모와 반씩 나누어 부담하고 있다(5.17%), 내가 1/2이상 부담하고 있다(4.80%), 내가 모두 부담하고 있다(3.70%)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46.86%)이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39.85%)이 가장 많았다. 가족의 경제적 수준을 물었을 때에는, ‘중’ (45.39%), ‘중상’ (32.84%), ‘중하’ (13.65%), ‘상’ (5.90%), ‘하’ (2.21%) 순으로 응답이 분포하였다. 분석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면 아래 표 3, 4와 같다.

표 1. 분석 표본의 성별 및 나이

	대상의 수 (%)	만 나이 평균 (표준편차)
남자	109 (40.22%)	21.98 (2.16)
여자	162 (59.78%)	20.90 (1.75)
전체	171 (100%)	21.34 (2.00)

표 2. 분석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
대학 분류	국내 4년제 대학	254 (93.73%)
	국내 2, 3년제 전문대학	15 (5.54%)
	기타	2 (0.74%)
학교 소재지	서울·인천·경기도	174 (64.21%)
	대전·세종·충청도	50 (18.45%)
	울산·대구·부산·경상도	38 (14.02%)

	광주·전라도	8 (2.95%)
	강원도	1 (0.37%)
주전공 (복수응답)	공학	90
	경영학	43
	사회과학	39
	인문학	28
	자연과학	23
	사범대학	14
	예체능	12
	의학	7
	간호학	6
	생활과학	5
	농업생명과학	4
	약학	3
	기타	18
학년	1학년	53 (19.56%)
	2학년	79 (29.15%)
	3학년	60 (22.14%)
	4학년	76 (28.04%)
	5학년 이상	3 (1.11%)
재학 여부	재학	227 (83.76%)
	휴학	31 (11.44%)
	기타	13 (4.80%)
나의 혼인 여부	미혼	271 (100%)
아버지 생존 여부	그렇다	268 (98.90%)
어머니 생존 여부	그렇다	269 (99.26%)
친아버지 여부	그렇다	270 (99.63%)
친어머니 여부	그렇다	269 (99.26%)
부모의 혼인관계 유지 여부	그렇다	254 (93.73%)
부모 간 동거여부	그렇다	215 (79.34%)
	아니다	27 (9.96%)
	직장 문제로 인한 주말부부	29 (10.70%)
부모와 나의 동거여부	부모 모두와 함께 살고 있음	159 (58.67%)
	부모 중 1명과 함께 살고 있음	23 (8.49%)
	부모 모두와 떨어져 살고 있음 (자취, 기숙사 등)	89 (32.84%)

	모두 부모가 지원	199 (73.43%)
부모의 경제적 지원 (학비 및 생활비)	1/2이상 부모가 지원	35 (12.92%)
	부모와 반씩 부담	14 (5.17%)
	1/2이상 스스로 부담	13 (4.80%)
	모두 스스로 부담	10 (3.70%)
아버지의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 (1.48%)
	고등학교 졸업	72 (26.57%)
	2, 3년제 대학 졸업	20 (7.38%)
	4년제 대학 졸업	127 (46.86%)
	석사 졸업 이상	40 (14.76%)
	모름	8 (2.95%)
어머니의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 (1.48%)
	고등학교 졸업	108 (39.85%)
	2, 3년제 대학 졸업	34 (12.55%)
	4년제 대학 졸업	98 (36.16%)
	석사 졸업 이상	21 (7.75%)
	모름	6 (2.21%)
가족의 경제적 수준	하	6 (2.21%)
	중하	37 (13.65%)
	중	123 (45.39%)
	중상	89 (32.84%)
	상	16 (5.9%)

## 2. 연구 절차

모든 연구 참여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었으며, 서베이 몽키 (SurveyMonkey,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 문건을 온라인 대학 커뮤니티에 게시하였고, 해당 홍보 글을 읽어보았을 때 본 연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같은 페이지에 적힌 URL 주소로 접속하도록 안내하였다. URL 주소를 클릭하면 첫 화면에 연구설명문과 동의서가 나타난다. 연구 목적으로 설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체크한 경우에만 설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설문지는 (1) 연구 참여자 및 참여자의 부모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묻는 질문지, (2) K-SWLS(조명한, 차경호, 1998), (3) K-BDI-II (Lee, Lee, Hwang, Hong, Kim, 2017), (4) SACQ(양혜선, 2004)의 개인-정서

적응 문항, (5) PSI(정은희, 1992)의 갈등적 독립 문항, (6) K-MC-13(박중규, 1999), (7) K-LPEI(이기세, 이수정, 연구진, 2018) 순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상관 및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1), (4), (5), (6), (7) 질문지만이 사용되었다. K-LPEI를 마지막에 제시한 것은 불일치 도식이 활성화되면 이후 응답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Higgins, 1987; Strauman, 1989). 질문지를 작성한 이후에는, 사후설명문 페이지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과 가설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였다. 설문 정보가 수집된 이후에는 설문 마지막 페이지에 입력한 핸드폰 번호로 3,000원 편의점 기프트콘이 지급되었다. 핸드폰 번호에 관한 정보는 기프트콘을 배포한 뒤 바로 폐기하였다.

설문 정보가 수집된 이후에는 RStudio(1.3.959 Ver.)를 활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분석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척도의 문항내적 합치도(Chronbach's Alpha)를 계산하였다. 이후, 변인 간 상관계수를 계산함으로써 관계의 크기 및 방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대학생활 심리적 적응에 대한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 또는 갈등적 독립의 설명량을 계산하고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bootstrap 방식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이때, 모든 회귀분석에서 사회적 바람직성 변인을 첫 번째로 투입함으로써 해당 변인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후,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연구 결과 및 함의를 제시하였다. 한편, 필요에 따라 R 패키지를 추가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다. 부분 상관계수 계산은 'ppcor' (1.1 Ver.), 문항내적 합치도(Chronbach's Alpha) 계산 및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psych' (1.9.12.31 Ver.), 표준화 회귀계수 계산은 'lm.beta' (1.5-1 Ver.)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 3. 연구 도구

#### 3.1. 부모기대와 실제자기의 불일치

본 연구에서는 부모기대와 실제자기의 불일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Wang과 Heppner(2002)가 개발한 부모기대 부응 척도(Living up to Parental Expectation Inventory: LPEI)를 한국어로 번안·타당화한 척도(이기세, 이수정, 연규진, 2018)를 사용하였다. 단, 온라인 설문 소프트웨어의 한계로 인해 원 척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예컨대, 아래 표 3과 같이 원척도에서는 “부모님은 내게 겸손하고 예의바르기를 기대하신다” 라는 한 문장에 대하여 부모기대, 자기수행을 나누어 응답하도록 안내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해당 문항을 두 개의 질문으로 나누어 “부모님은 내게 겸손하고 예의바르기를 기대하신다” 와 “나는 겸손하고 예의바르다” 각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에서 ‘매우 그렇다’ (6) 사이의 점수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표 3. K-LPEI 원척도 일부 문항

번호	문항							
1	부모님은 내게 겸손하고 예의 바르기를 기대하신다.	부모기대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매우 많이 기대하신다▶					
			1	2	3	4	5	6
		자기수행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다      매우 잘 수행하고 있다▶					
			1	2	3	4	5	6

그림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K-LPEI 척도 일부 문항

\* 5. (3-A) 부모님은 내게 겸손하고 예의 바르기를 기대하신다.



\* 6. (3-B) 나는 겸손하고 예의 바르다.



한국판 LPEI는 지각된 부모의 기대(Perceived Parental expectation: PPE)와 지각된 자기수행(Perceived Self Performance: PSP),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도(Living up to Parental Expectation: LPE)로 이루어져 있으며, PPE와 PSP는 인격적 성숙(Personal Maturity; 5문항, “부모님은 내게 겸손하고 예의 바르기를 기대하신다” 등), 학업적 성취(Academic Achievement; 5문항, “부모님은 내게 뛰어난 학업성적을 받기를 기대하신다” 등), 연인 관계(Dating Concern; 5문항, “부모님은 내가 누구를 사귀기 전에 부모님의 허락을 구하기를 기대하신다” 등)라는 3가지 요인(총 15문항)을 측정한다.

응답자는 각 문항 별로 부모기대와 자기수행의 두 가지 측면에서 6점 Likert 척도(1=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6=매우 많이 기대하신다)로 평정하므로 총 30번의 응답을 하게 된다. 따라서 PPE 또는 PSP 총점의 점수범위는 15~90점이다. LPE는 각 문항의 PSP 값에서 PPE 값을 뺀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LPE 값이 높을수록 부모-자녀 기대의 불일치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PSP-PPE 평균 점수는 -5.87 (SD=14.54)이었으며, 이는 본 연구 참여자들이 대체로 자기 수행보다 부모 기대가 높다고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Wang과 Heppner(2002)의 연구에서 LPE의 내적 신뢰도(Chronbach's Alpha)는 요인 별로 .89, .84, .74로 나타났으며, 4주 간격을 두고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에서도 요인 별로 .80, .74, .61의 적절한 안정성을 보였다(인격적 성숙, 학업적 성취, 연인 관계 순). 본 연구에서 15문항으로 축소 및 타당화한 한국판 LPE 문항의 내적 신뢰도(Chronbach's Alpha)는 .87이었으며, 요인 별로 보았을 때 인격적 성숙은 .81, 학업적 성취는 .83, 연인 관계는 .74이었다.

다른 척도와의 변별타당도를 살펴보았을 때, LPE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하는 M-C SDS(Marlowe-Crowne Social Desirability Scale; Crowne & Marlowe, 1960)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아, 서로 구분

되는 구성개념을 측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Wang & Heppner, 2002). 본 연구에서는 M-C SDS를 13문항으로 축소한 척도(K-MC-13)와  $.26(p<.001)$ 의 약한 상관을 보였다. 또한 LPE는 자기-불일치 이론에 근거하였을 때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들과도 정적 상관을 보여왔다. 예컨대, LPE가 높을수록 높은 분노, 우울, 불안(Wang & Heppner, 2002; Agliata & Renk, 2009)과 낮은 자존감과 높은 대학생활 부적응(Agliata & Renk, 2008)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도 LPE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삶의 만족(*partial*  $r=-.31, p<.001$ ), 우울(*partial*  $r=.28, p<.001$ ), 대학생활에서의 심리적 적응(*partial*  $r=-.20, p<.001$ )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 3.2. 대학생활에서의 심리적 적응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에서의 심리적 적응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Baker와 Siryk(1984, 1985, 1999)가 제작한 대학생활 적응 척도(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현진원(1992)이 번안하고 양혜선(2004)이 사용한 척도 중 개인-정서적응 하위척도를 활용하였다. 이는 양혜선(2004)이 사용한 문항이 현진원(1992)이 번안한 문항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다듬어져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SACQ는 학업적응(Academic Adjustment, 24문항), 사회적응(Social Adjustment, 20문항), 개인-정서적응(Personal-Emotional Adjustment, 15문항), 대학환경적응(Goal Commitment/Institutional Attachment, 15문항)의 4가지 요인(총 6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개의 문항(53번, 67번)은 어느 하위척도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몇몇 문항들은 2개 하위척도에 중복 포함되어 있다.

그중 개인-정서적응 하위척도는 대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심리내적 상태에 초점을 맞추며, 특히 경험하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에 수반하여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탐색한다(예, “최근에 나는 기분이 매우 우울하

다”, “최근 나는 긴장감을 느끼거나 신경이 예민해져 있다”).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해 9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9=매우 그렇다)로 보고하게 된다. 부적응적인 내용의 13문항을 역산한 후, 응답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 점수가 계산되며, 점수 범위는 15~13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정서 적응을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Baker와 Siryk(1999)의 보고에서 개인-정서적응 문항의 신뢰도(Chronbach's Alpha)는 .77에서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Chronbach's Alpha)가 .89로 계산되었다. 또한 개인-정서적응 문항은 적절한 구인타당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SACQ의 구인 타당도를 살펴보았던 Baker와 Siryk(1999)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선행 연구에서 개인-정서 적응 척도에서의 낮은 점수는 자존감 및 자기-효능감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외로움, 낮은 갈등적 독립, 높은 심리적 고통, 낮은 심리적 건강, 높은 우울, 그리고 불안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을 받으려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개인-정서적응 척도의 점수가 유의하게 더 낮았다.

### 3.3. 갈등적 독립

본 연구에서는 갈등적 독립을 측정하기 위하여 Hoffman(1984)의 심리적 독립척도(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 PSI)를 정은희(1992)가 번안, 수정한 질문지 중 ‘갈등적 독립’ 문항을 사용하였다. PSI는 정신분석이론(e.g., Blos, 1979)을 기반으로 제작된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수준을 어머니, 아버지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원 척도는 기능적 독립(26문항), 태도적 독립(28문항), 정서적 독립(34문항), 갈등적 독립(50문항)의 4가지 요인(총 1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는 26문항을 제외시킨 112문항의 한국판 PSI를 사용하였다.

기능적 독립(Functional Independence)은 부모 도움 없이 실제적이면서 개인적인 일들을 스스로 관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지칭한다. 태도적 독립(Attitudinal Independence)은 부모와 구별되는 자신만

의 신념, 가치관, 태도, 종교 등을 갖는 것을 말한다. 한편, 자녀는 행동과 인지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정서적 영역에서도 부모의 영향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데, 그 정서가(valence)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정서적 독립과 갈등적 독립으로 구분된다. 정서적 독립(Emotional Independence)은 부모에게 인정이나 친밀감, 정서적 지지를 받으려는 과도한 욕구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갈등적 독립(Conflictual Independence)은 부모에 대한 과도한 죄책감과 불안, 불신, 책임감, 억압, 원망, 분노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마지막 요인인 갈등적 독립 척도(2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지 않고 갈등적 독립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는 총 20문항에 대해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에 응답하게 되며, 최종 PSI 점수는 총점을 기준점인 100점에서 빼서 계산된다. 점수가 더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갈등적으로 독립하였음을, 즉 부모에 대한 갈등적 정서를 더 적게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갈등적 독립의 점수 범위는 0점에서 80점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인데, 우선, 본 연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여 연구 가설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아버지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높은 상관(e.g., Hoffman, 1984; Palladino & Blustein, 1994; O' Brien, 1996)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종속변수를 예측하는데 다중공선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PSI를 활용한 여러 연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모로 통합하여 측정한 바 있다(e.g., Leondari & Kiosseoglou, 2000; Beyers & Goosens, 2003).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offman(1984)의 연구에서 PSI의 신뢰도(Chronbach' s Alpha)는 어머니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이 .92, 아버지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이 .88로 나타났다. 2~3주 간격을 두고 실시된 검사-재검사 신뢰도(Hoffman, 1984)에서 갈등적 독립은 .85~.96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은희(1992)가 변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을 때 어머니에 대한 갈등적 독립의 내적 합치도

(Chronbach' s Alpha)는 .82, 아버지에 대한 갈등적 독립의 내적 합치도(Chronbach' s Alpha)는 .92였다(이준엽, 1994). 3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측정하였을 때에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갈등적 독립의 신뢰도가 각각 .84, .76이었다(이준엽, 1994). 본 연구에서 갈등적 독립 문항의 신뢰도(Chronbach' s Alpha)는 .94로 계산되었다.

한편, PSI는 부모로부터의 개별화가 실패하여 가족으로부터 행동적 또는 정서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경우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Anderson & Sabatelli, 1990). 이는 정상적인 심리적 독립 과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척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모와 단절된 경우를 통제하기 위하여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 중 관련 문항("부모님과 왕래가 없고 관계가 단절되었다")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이후 통계적 분석과정에서 "부모 모두와 왕래가 없고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였다.

### 3.4. 사회적 바람직성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Crowne과 Marlowe(1960)가 개발한 Marlowe-Crowne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Marlowe-Crowne Social Desirability Scale: M-C SDS)를 Reynolds(1982)가 13문항으로 축소한 것을 박중규(1999)가 한국어로 번안한 한국판 MC-13 척도를 사용하였다.

MC-13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예 "누구와 얘기하건 간에 나는 항상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예, "나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은 경우가 몇 번 있다") 등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검자는 "예" 또는 "아니오" 중 하나에 응답하게 되며, 총점은 역문항을 역산하여 점수의 단순 합을 내어 계산된다. 점수 범위는 0점에서 13점이다.

신뢰도를 살펴보았을 때,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Zook & Sippes, 1985)에서 단축형 M-C SDS의 내적 합치도(KD-20)는 .74,

6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4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판 MC-13의 내적 합치도(Chronbach's Alpha)는 .66이었다.

## 4. 연구 결과

### 4.1. 기술통계

우선, 본 연구의 분석 표본이 어떠한 상대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 응답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계산하였다(표 4 참고). 평균 점수를 보았을 때, 본 표본 집단은 삶의 만족과 우울에서 비임상적인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는 BDI-II 총 점수가 0~13점이면 정상 수준(Beck, Steer, & Brown, 1996)이며, SWLS 총 점수가 21 이상이면 삶에 만족하는 수준(Pavot & Diener, 2009)이라는 기준을 따른 것이다. 한편, LPEI 점수를 보았을 때에는 PPE(지각된 부모기대) 평균보다 PSP(지각된 자기수행) 평균이 더 낮았다. 이는 본 연구의 표본 집단이 대체로 부모가 기대하는 모습에 현재 자신이 미치지 못한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4. 변수별 평균 및 표준편차

변수	평균	표준편차
삶의 만족 (K-SWLS)	21.55	6.28
우울 (K-BDI-II)	11.65	9.91
대학생활 심리적 적응 (SACQ의 개인-정서적응 문항)	84.54	22.44
갈등적 독립 (PSI의 갈등적 독립 문항)	52.52	17.88
사회적 바람직성 (K-MC-13)	6.67	2.62
지각된 부모 기대 (K-LPEI의 PPE)	55.63	13.89
지각된 자기 수행 (K-LPEI의 PSP)	49.76	9.93
부모기대와 실제자기의 불일치 (K-LPEI의 LPE)	-5.87	14.54

#### 4.2. 상관 및 회귀분석

다음으로, 본 연구에 투입된 변수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표 5) 및 회귀분석(표 6)이 실시되었다. 부모기대와 실제자기가 일치할수록 대학생활에서의 심리적 적응 수준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r=.29, p<.001$ ). 사회적 바람직성은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수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r=.26, r=.45, r=-.28$ , 부모기대-실제자기 일치, 대학생활 심리적 적응, 갈등적 독립 순, 모두  $p<.001$ 에서 유의). 사회적 바람직성 변인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부모기대와 실제자기의 일치 수준은 대학생활의 심리적 적응 수준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partial*  $r=.20, p<.001$ ). 반면, 부모기대만을 독립변인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러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partial*  $r=-.04, p=ns$ ).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Adjusted  $R^2$ 를 비교하였을 때, 사회적 바람직성 만으로는 심리적 적응 변량의 약 20%가 설명되었고,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치 요인이 투입되면 설명량이 22%로 증가하였다. 분산분석 결과, 이러한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1$ ).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치의 세부 영역을 보았을 때,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기대 영역은 ‘학업적 성취’와 ‘연인 관계’ 영역이었다(순서대로 *partial*  $r=.19, partial$   $r=.16$ , 모두  $p<.01$ 에서 유의). 반면, ‘인격적 성숙’ 영역에서의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는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partial*  $r=.08, p=ns$ ). 이는 ‘인격적 성숙’에서의 불일치가 대만 대학생의 불안과 우울을 가장 잘 예측하였던 Wang과 Heppner(2002)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표 5. 주요 변수 간 부분 상관계수 (사회적 바람직성 통제)

변수	1	2	3
1. 부모기대-실제자기 일치	-		
2. 대학생활 심리적 적응	.20***	-	
3. 갈등적 독립	-.43***	-.49***	-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6.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치 효과 확인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변수	B	SE B	t
종속변인: 대학생활 심리적 적응			
Block 1 [F(1,269)=66.61, p<.001] ΔR <sup>2</sup> =.20			
사회적 바람직성	3.81	.47	8.16***
Block 2 [F(2,268)=40.13, p<.001] ΔR <sup>2</sup> =.22			
사회적 바람직성	3.40	.47	7.18***
부모기대-실제자기 일치	.29	.09	3.34***

\*p < .05. \*\*p < .01. \*\*\*p < .001.

### 4.3. 매개분석

이후, ‘갈등적 독립’이 ‘부모기대-실제자기의 일치’ 요인과 ‘심리적 적응’ 관련 변인 사이를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의 4가지 조건을 참고하였다.

첫째로,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독립변인(부모기대-실제자기의 일치)과 매개변인(갈등적 독립)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partial r*=.43, *p*<.001). 둘째로,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독립변인(부모기대-실제자기의 일치)과 종속변인(심리적 적응)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partial r*=.20, 모두 *p*<.001). 셋째로, 사회적 바람직성과 독립변인(부모기대-실제자기의 일치)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매개변인(갈등적 독립)과 종속변인(심리적 적응)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partial r*=.46, 모두 *p*<.001). 넷째로, 사회적 바람직성과 매개변인을 모두 통제하였을 때, 독립변인(부모기대-실제자기의 일치)과 종속변인(심리적 적응) 간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게 되었다(*partial r*=-.01, *p*=ns). 표 7은 같은 결과를 다중회귀분석에서 회귀계수의 변화를 통해 보여준다.

이러한 회귀계수 변화의 유의성을 붓스트랩(Bootstrap) 방법을 활용하여 검증하였을 때에도, 갈등적 독립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즉, 갈등적 독립은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와 대학생활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에 대한 표준화 추정치는 .19로 계산되었으며, 95% 신뢰구간은 .13에서 .2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검증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요컨대, 부모기대-실제자기가 불일치할수록 대학생 자녀는 부모에 대해 원망, 죄책감, 분노 등의 갈등적 정서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감정들은 대학생활에서의 심리적 부적응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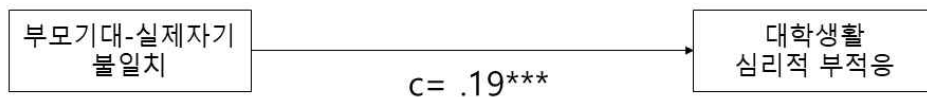
표 7.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 (비표준화 계수)

매개모형 검증 단계	B	SE B	t
단계 1 (Path c)			
결과변인: 대학생활 심리적 적응			
통제변인: 사회적 바람직성	3.40	.47	7.18***
예측변인: 부모기대-실제자기 일치	.29	.09	3.34***
단계 2 (Path a)			
결과변인: 갈등적 독립			
통제변인: 사회적 바람직성	1.20	.37	3.21**
예측변인: 부모기대-실제자기 일치	.52	.07	7.69***
단계 3 (Path b, c')			
결과변인: 대학생활 심리적 적응			
통제변인: 사회적 바람직성	2.71	.43	6.29***
매개변인: 갈등적 독립	.58	.07	8.43***
예측변인: 부모기대-실제자기 일치	-.02	.08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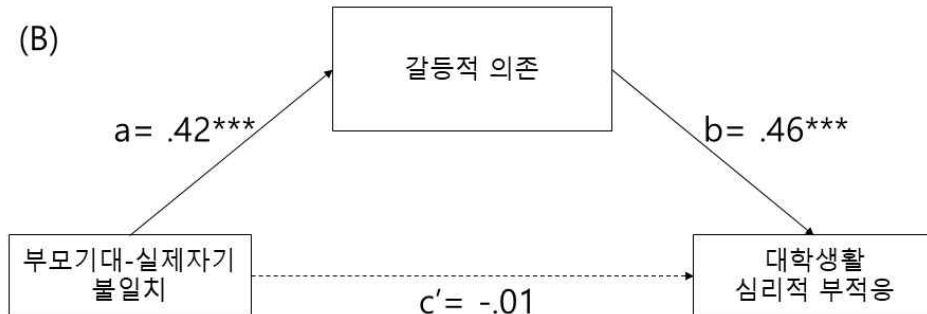
\* $p < .05$ . \*\* $p < .01$ . \*\*\* $p < .001$ .

그림 2.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치의 직접효과(A) 및 간접효과(B) (사회적 바람직성 통제, 표준화 계수)

(A)



(B)



## VI. 결론 및 제언

### 1.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지각된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치가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두 변인을 중재하는 요인으로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가 지각한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는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대학생활에서의 심리적 부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 및 불안(Wang, & Heppner, 2002; Agliata & Renk, 2009), 낮은 자기 가치감 및 학교생활 부적응(Agliata & Renk, 2008), 삶의 만족(Oishi & Sullivan, 2005)을 종속 변인으로 살펴본 선행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반면, 부모기대만을 독립 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부모기대 그 자체는 대학생의 심리적 어려움 혹은 적응 관련 변인과 낮은 상관을 보였던 선행연구 결과(Wang & Heppner, 2002; Agliata & Renk, 2008, 2009)와 일치한다.

둘째,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와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 간의 관계에서 갈등적 독립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시 말해, 갈등적 독립이 변인으로 투입되면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가 종속 변인을 설명하는 변량은 유의하지 않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기대-실제자기가 불일치한다고 지각하면서도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던 대학생들이 부모에 대한 갈등적 정서를 거의 보고하지 않았던 이도형 등(2018)의 연구 결과와 일관된다.

### 2. 함의

위의 연구 결과는 다음을 함의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첫째,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는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부모기대 그 자체는 대학생의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 기대에 관한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는 내담자를 만나게 되면, 부모의 기대와 실제 자기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부모기대 또는 실제자기에 대한 지각에서 비현실적인 측면이 발견된다면, 상담사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상호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러한 불일치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Agliata & Renk, 2008, 2009).

둘째,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는 원망, 분노, 죄책감 등 부모에 대한 갈등적 정서를 유발함으로써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로 인해 심리적 부적응을 호소하는 내담자를 만나게 되면, 상담사는 그가 자신의 부모에 대해 어떠한 갈등적 정서를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정서의 강도와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개별화를 촉진하는 등 부모에 대한 갈등적 정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상담 개입을 실시함으로써,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치로 인한 심리적 부적응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 3.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 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일반적으로 부모기대-실제자기의 일치는 자녀의 심리적 적응과 긍정적인 상관을 보인다. 하지만 오랜 기간 부모기대에 과잉 부응하고 있는 자녀 혹은 높은 부모기대에 계속해서 부응하고 있는 자녀는 이러한 행동을 뒷받침하는 부적응적 신념을 갖고 있거나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다(김행수, 2013. 4. 4.). 이와 관련하여 이동연(2013)은 ‘행복하기 위해 높은 성취를 하였지만, 높은 성취는 성적 하락에 대한 두려움을 압박하여 불행을 야기할 수 있다’며, 행복과 불행의 양가성(“행복하지만, 행복한 만큼 불행하다”)을 통해 해당 현상을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특수 집단에 대해서는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

기보다는 개별적인 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본 연구는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우리나라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에도 같은 결과가 도출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치가 대학생 자녀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문화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부모 자녀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부모자녀 동일체 의식’ (류정현, 2007), ‘관계주의’ (최인재, 2006), ‘효(孝) 사상’ (Shek & Chan, 1999)에 주목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기쁨과 슬픔이 곧 자녀의 기쁨과 슬픔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고, 부모와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부모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강조된다. 특히, 우리나라 부모는 자녀의 학업적 성공을 위해서라면 큰 경제적 부담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이에 깊이 관여하는 모습을 보인다(이종각, 2003). 따라서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치, 특히 학업 영역에서의 불일치는 다른 문화권에서보다 우리나라 대학생 자녀에게 더욱 큰 죄책감과 원망, 내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Chang(1998) 또한 부모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시아계 미국인이 유럽계 미국인에 비해 더 많이 두려워한다는 점을 보고한 바 있다.

셋째로, 본 연구는 학업성적 외에 연인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가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음을 보였다. 하지만 학업과 진로문제와 달리(진로 기대 = 신동우, 유계숙, 2012; 정예지, 이재림, 2014; 정예지, 유계숙, 2015; 학업 영역에 대한 성취 기대 = 신종호, 진성조, 김연제, 2010; 박영신, 박영균, 김의철, 한기혜, 2011; 임선아, 2012; 안도희, 김유리, 2012; 장신애, 2016), 연애 관계에 관해서는 부모기대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관해 연구된 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는 자녀의 연인에 관하여 특정 기대를 가질 수 있고, 이것이 자녀의 생각이나 현재 상태와는 불일치할 수 있다. 다만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부모의 기대는 자녀의 성 정체성(Yang, 1983; Wang & Heppner, 2002 재인용)과 연인을 결정할 때(Chen & Liaw, 1993; Wang & Heppner, 2002 재인용)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국내

대학신입생 대상 설문 연구(오은정, 김민선, 정소라, 2015)에서도 연구 참여자의 9.2%가 ‘이성교제’에서 부모와 의견 차이를 보인다고 응답한 바 있다. 그리고 성인 초기에는 연인을 비롯한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 역시 핵심적인 발달과업이라는 점(Erikson, 1980, 1982)을 고려할 때, 중요한 타인 중 한 명인 연인에 대한 부모의 반대는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을 유발할 만큼 상당한 정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자녀가 어떠한 사람과 연애해야한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해 부모와 대학생 자녀 간 의견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것이 자녀에게 어떠한 심리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이성교제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이창식, 김용미, 박미자, 2006; 백옥현, 2011),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개별화 수준이 중고등학생 자녀의 이성관계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백옥현, 2011)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연애에 관한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치가 자녀에게 어떠한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해 탐색한 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연구가 추가로 실시된다면, 본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고 대학생의 심리적 부적응을 보다 풍부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로, 본 연구는 매개변인으로 ‘갈등적 독립’을 설정함으로써, 부모-자녀 관계에서 분리 또는 거리두기 관련 변인에 집중하였다. 하지만 가장 성숙한 부모-자녀 관계에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상호간 높은 친밀감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e.g., White, Speisman, & Costos, 1983; Mazor & Enright, 1988; Smollar & Youniss, 1989; Smetana & Asquith, 1994; Collins, Laursen, Mortensen, Luebker, & Ferreira, 1997; De Goede, Branje, & Meeus, 2009). 즉, 청소년기 초기에는 부모의 것과 구별된 자신만의 의견을 구성하고 자율성을 주장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지만, 후기 청소년기 또는 초기 성인기로 갈수록 부모도 한 인간임을 인식하고 서로의 관점을 이해 및 수용하는 평등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후에는 부모-자녀

관계의 발달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연구가 설계 및 실시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변수 간 상관을 알아보는 횡단 연구였기 때문에, 인과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추가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치로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는 대학생 내담자에게 부모에 대한 갈등적 정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상담 개입을 제공하는 경우, 실제로 기존의 부적응이 완화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김명자, 남향자. (2010). 전국 대학신입생의 대학생활 기대 및 정신건강. *인간이해*, 31(1), 105-127.
- 김계현, 황매향, 선혜연, 김영빈. (2005). 대학생 학교생활 적응검사의 예언타당도 연구. *상담학연구*, 6(4), 1103-1117.
- 김수임, 김창대. (2009). 진로상담: 애착과 심리적 독립이 진로발달 및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 *상담학연구*, 10(3), 1573-1591.
- 김영린, 이기학. (2011).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심리적 독립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12(4), 125-143.
- 김종백, 김준엽. (2009). 학업 성취 관련 요인과 자아개념을 매개로 한 부모의 교육기대와 학업관여가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종단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23(2), 389-412.
- 김행수. (2013. 4. 4.). 전교 1등 그 아이는 왜 죽음을 택했을까: 아이들의 유서로 본 30년 챗바퀴 교육의 자화상. *오마이뉴스*. <http://bit.ly/XcZEW8> (2020. 6. 18. 최종 접속)
- 류정현. (2007). 한국적 부모-자녀 관계, 가족주의, 효. *부모교육연구*, 4, 81-94.
- 박영신, 박영균, 김의철, 한기혜. (2011). 도시와 농촌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삶의 질. *한국청소년연구*, 22(3), 5-41
- 박은희. (2003). *어머니의 자녀 기대감 척도의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중규. (1999). *아동의 방해적 문제행동에 대한 인지-행동적 부모훈련과 행동적 부모훈련의 치료효과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옥현. (2011). 이성교제에 대한 청소년 자녀와 부모 간의 지각의 차이와 갈등. *청소년학연구*, 18(12), 29-54
- 서울대학교. (2007). *서울대학교 학생 정신건강 대책 연구위원회 보고서*. 서울대학교.



- 신동우, 유계숙. (2012). 부모의 자녀 진로 기대에 대한 대학생의 지각이 학업,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1), 3-22.
- 신중호, 진성조, 김연제 (2010). 지각된 부모의 학업지원, 성취기대, 일상통제가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자기결정성 동기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4(1), 121-137
- 안도희, 김유리 (2012). 기대 및 가치 신념이 청소년의 학업 성취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청소년학연구*, 19(3), 293-319
- 양혜선. (2004). *애착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오은정, 김민선, 정소라. (2015). *2014학년도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생활연구*. 학생생활연구.
- 이기세, 이수정, 연구진. (2018). 대학생들의 부모기대부응과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31(3), 21-41.
- 이기학, 김영린. (2012). 심리적 독립성, 의존부정성향, 자기성장주도성에 따른 하위집단별 대학생활적응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차이. *상담학연구*, 13(5), 2251-2270.
- 이도형, 김예은, 유소영, 김명선, 박미정, 연구진. (2018). 부모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지각하는 대학생들의 부모기대에 대한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3), 821-853.
- 이동연. (2013). 자살 권하는 사회: 청소년과 연예인 자살의 의미계열. *문화과학*, 74. 139-163.
- 이상철, 정상원, 김새로미, 이혁준. (2008). 자기불일치가 불안 및 우울을 매개로 부적자아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5(3). 183-206.
- 이용택, 이은경. (201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가 청소년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20(1), 55-70
- 이재림, 전예지. (2014). 대학생과 미취업 대졸자 청년이 지각한 부모의 진로기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9(3), 119-146.
- 이종각. (2003). *외국의 교육열 사례: 외국에는 어떤 교육열 현상이 나*

- 타나는가.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준엽. (1994). 심리적 독립 척도(*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창식, 김용미, 박미자. (2006). 청소년 이성교제 허용수준에 대한 청소년과 부모세대간 차이.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7(4), 127-135
- 임선아. (2012). 고등학생의 수학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기대와 참여, 학생의 자아-효능감과 학업적 관여도의 효과. *청소년학연구*, 19(2), 179-204
- 장신애. (2016). 취업준비생들이 느끼는 성취압력과 취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지희. (2010).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와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예지, 이재림. (2014). 대학생과 미취업 대졸자 청년이 지각한 부모의 진로기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9(3), 119-146.
- 전홍진, 배주미, 우종민. (2013). 청소년 자살 관련 현황 및 위험요인.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56(2), 93-99.
- 정소희, 이경희. (2016). 부모의 과잉간섭과 과잉기대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우울, 공격성, 자존감,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52, 313-342.
- 정예지, 유계숙. (2015). 부모의 자녀 진로 기대에 대한 대학생의 지각이 진로결정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 공공부문과 대기업 일자리 희망여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7(3), 39-66.
- 정은희. (1992).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혜연. (2009). 부모진로기대에서 적성의 고려 여부가 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학생들의 지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명한, 차경호. (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서울: 집문당.
- 최인재. (2006).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고찰. 상

- 담학연구, 7(3), 761-773.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현진원. (1992). *'완벽주의' 성향과 평가수준이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Agliata, A. K., & Renk, K. (2008). College students' adjustment: The role of parent-college student expectation discrepancies and communication reciproc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8), 967-982.
- Agliata, A. K., & Renk, K. (2009). College students' affective distress: The role of expectation discrepancies and communicatio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8*(4), 396-411.
- Albert, M. (1989). *Physical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From Parents As It Relates to Adjustment To colle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arry University, Miami Shores, FL.
- Anderson, S. A., & Sabatelli, R. M. (1990). Differentiating differentiation and individuation: Conceptual and operation challenge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8*(1), 32-50.
- Arnett, J. J. (2014). *Adolescence and emerging adulthood*. Boston, MA: Pearson.
- Austin, L., & Inderbitzin, L. B. (1983). Brief psychotherapy in late adolescence: A psychodynamic and developmental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37*(2), 202-209.
- Baker, R. W., & Siryk,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9-189.
- Baker, R. W., & Siryk, B. (1985). Expectation and reality in freshman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 Psychology*, 32(1), 94–103.
- Baker, R. W., & Siryk, B. (1999). *SACQ: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Manual. 2<sup>nd</sup> ed.*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ck, A. T., Steer, R. A., & Brown, G. K. (1996). *Beck depression inventory* (2nd Manual). San Antonio, TX: The Psychological Corporation.
- Bentall, R. P., Kinderman, P., & Manson, K. (2005). Self–discrepancies in bipolar disorder: Comparison of manic, depressed, remitted and normal participant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4(4), 457–473.
- Beyers, W., & Goossens, L. (2003).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adjustment to university: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age, and perceived parenting styl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8(4), 363–382.
- Blos, P. (1979). *Adolescent passag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Campbell, J. D., Assanand, S., & Paula, A. D. (2003). The structure of the self–concept and its relation to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71(1), 115–140.
- Carver, C. S., Lawrence, J. W., & Scheier, M. F. (1999). Self–discrepancies and affect: Incorporating the role of feared sel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7), 783–792.
- Chang, E. C. (1998). Cultural differences, perfectionism, and suicidal risk in a college population: Does social problem solving still matter?.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2(3),

- 237–254.
- Choi, K. H. (2002). Psychological separation–individu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among Korean American students: The roles of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4), 468–475.
- Clark, D. A., Beck, A. T., & Brown, G. (1989). Cognitive mediation in general psychiatric outpatients: A test of the content–specificity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6), 958–964.
- Collins, W. A., Laursen, B., Mortensen, N., Luebker, C., & Ferreira, M. (1997). Conflict processes and transitions in parent and peer relationships: Implications for autonomy and regula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2), 178–198.
- Crowne, D. P., & Marlowe, D. (1960). A new scale of social desirability independent of psychopatholog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4*(4), 349–354.
- De Goede, I. H., Branje, S. J., & Meeus, W. H. (2009). Developmental changes in adolescents’ perceptions of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8*(1), 75–88.
- Erikson, E. H. (1980).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Norton.
- Erikson, E. H. (1982). *The life cycle completed: A review*. New York: Norton.
- Fisher, R. J., & Katz, J. E. (2000). Social–desirability bias and the validity of self–reported values. *Psychology & marketing, 17*(2), 105–120.
- Friedlander, M. L., & Siegel, S. M. (1990). Separation–individuation difficulties and cognitive–behavioral indicators of eating disorders among college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1), 74–78.

- Fulmer, R. H., Medalie, J., & Lord, D. A. (1982). Life cycles in transition: A family systems perspective on counselling the college student. *Journal of Adolescence*, 5(3), 195–217.
- Grotevant, H. D., & Cooper, C. R. (1985). Patterns of interaction in family relationships and the development of identity exploration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6(2), 415–428.
- Haemmerlie, F. M., Steen, S. C., & Benedicto, J. A. (1994). Undergraduates' conflictual independence, adjustment, and alcohol use: The importance of the mother-student relationship.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0(4), 644–650.
- Hanlon, T. E., Hofstaetter, P. R., & O'Connor, J. P. (1954). Congruence of self and ideal self in relation to personality 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8(3), 215–218.
- Higgins, E. T., Klein, R., & Strauman, T. (1985). Self-concept discrepancy theory: A psychological model for distinguishing among different aspects of depression and anxiety. *Social cognition*, 3(1), 51–76.
- Higgins, T.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3), 319–340.
- Hoffman, J. A. (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0–178.
- Hoffman, J. A., & Weiss, B. (1987). Family dynamics and presenting problem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2), 157–163.
- Kinderman, P., & Bentall, R. P. (1996). Self-discrepancies and persecutory delusions: evidence for a model of paranoid ide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1), 106–113.
- Koepke, S., & Denissen, J. J. A. (2012). Dynamics of identity

- development and separation-individuation in parent-child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ce and emerging adulthood - A conceptual integration. *Developmental Review*, 32, 67-88.
- Lapsley, D. K., Rice, K. G., & Shadid, G. E. (1989).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3), 286-294.
- Lee, E. H., Lee, S. J., Hwang, S. T., Hong, S. H., & Kim, J. H. (2017).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II among Korean adolescents. *Psychiatry investigation*, 14(1), 30.
- Leondari, A., & Kiosseoglou, G. (2000). The relationship of parental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to the psychological functioning of young adult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0(4), 451-464.
- Lopez, F. G., Campbell, V. L., & Watkins, C. E. (1986). Depression,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college adjustment: An investigation for sex differenc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1), 52-56.
- Lopez, F. G., Campbell, V. L., & Watkins, C. E. (1988). Family structure,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college adjustment: A canonical analysis and cross-valid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4), 402-409
- Mahler, M. S., Pine, F., & Bergman, A. (2000).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 Symbiosis and individuation*. New York: Basic Books.
- Mazor, A., & Enright, R. D. (1988). The development of the individuation process from a social-cognitive perspective. *Journal of adolescence*, 11(1), 29-47.
- Moretti, M. M., & Higgins, E. T. (1990). Relating self-discrepancy to self-esteem: The contribution of discrepancy beyond actual-self ratings. *Journal of*

-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6(2), 108–123.
- Moretti, M. M., & Wiebe, V. J. (1999). Self-discrepancy in adolescence: Own and parental standpoints on the self. *Merrill-Parmer Quarterly*, 45(4), 624–649.
- O'Brien, K. M. (1996).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on the career development of adolescent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8(3), 257–274.
- Oishi, S., & Sullivan, H. W. (2005). The mediating role of parental expectations in culture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73(5), 1267–1294.
- Palladino, D. E., & Blustein, D. L. (1994). Role of adolescent-parent relationships in college student development and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248–255.
- Pavot, W., & Diener, E. (2009). Review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In *Assessing well-being* (pp. 101–117). Springer, Dordrecht.
- Renaud, J. M., & McConnell, A. R. (2007). Wanting to be better but thinking you can't: Implicit theories of personality moderate the impact of self-discrepancies on self-esteem. *Self and Identity*, 6(1), 41–50.
- Reynolds, W. M. (1982). Development of reliable and valid short forms of the Marlowe-Crowne Social Desirability Sca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8(1), 119–125.
- Rice, K. G. (1992). Separation-individu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2), 203–213.
- Rice, K. G., Cole, D. A., & Lapsley, D. K. (1990). Separation-individuation, family cohes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Measurement validation and test of a theoretical



-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2), 195–202.
- Schachter, E. P., & Ventura, J. J. (2008). Identity agents: Parents as active and reflective participants in their children's identity formation.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8(3), 449–476.
- Scott, L., & O' Hara, M. W. (1993). Self-Discrepancies in Clinically Anxious and Depressed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2), 282–287.
- Shek, D. T., & Chan, L. K. (1999). Hong Kong Chinese parents' perceptions of the ideal child. *The Journal of psychology*, 133(3), 291–302.
- Silverthorn, N. A., & Gekoski, W. L. (1995). Social desirability effects on measures of adjustment to university, independence from parents, and self-efficac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1(2), 244–251.
- Smetana, J. G., & Asquith, P. (1994). Adolescents' and parents' conceptions of parental authority and personal autonomy. *Child development*, 65(4), 1147–1162.
- Smollar, J., & Youniss, J. (1989). Transformations in adolescents' perceptions of par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2(1), 71–84.
- Strauman, T. J. (1989). Self-discrepancies in clinical depression and social phobia: Cognitive structures that underlie emotional disord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8(1), 14–22.
- Strauman, T. J. (1992). Self-guides, autobiographical memory, and anxiety and dysphoria: Toward a cognitive model of vulnerability to emotional distress.?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101(1), 87–95.
- Strauman, T. J., & Higgins, E. T. (1987). Automatic activation of self-discrepancies and emotional syndromes: When cognitive structures influenc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 psychology*, 53(6), 1004–1014.
- Strauman, T. J., & Higgins, E. T. (1988). Self-discrepancies as predictors of vulnerability to distinct syndromes of chronic emotion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56(4), 685–707.
- Tangney, J. P., Niedenthal, P. M., Covert, M. V., & Barlow, D. H. (1998). Are shame and guilt related to distinct self-discrepancies? A test of Higgins's (1987) hypothe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1), 256–268.
- Wang, L. F., & Heppner, P. P. (2002). Assessing the impact of parental expectations and psychological distress on Taiwanese college student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0(4), 582–608.
- White, K. M., Speisman, J. C., & Costos, D. (1983). Young adults and their parents: Individuation to mutuality.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22, 61–76.
- Yalom, I. D. (1980). *Existential Psychotherapy*, New York: Basic Books,
- Zook, A., & Sipps, G. J. (1985). Cross-validation of a short form of the Marlowe–Crowne Social Desirability Sca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1(2), 236–238.

## 부 록

- <부록 1>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지
- <부록 2> 한국판 부모기대 부응 척도(K-LPEI)
- <부록 3> 대학생활 적응 척도(SACQ) 중 개인-정서적응 문항
- <부록 4> 심리적 독립척도(PSI) 중 갈등적 독립 문항
- <부록 5> 한국판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단축형(K-MC-13)





13. 부모의 경제적 지원

- ① 학비 및 생활비(주거비 포함)를 모두 부모가 지원해주고 있음
- ② 학비 및 생활비(주거비 포함)를 1/2 이상 부모가 지원해주고 있음
- ③ 학비 및 생활비(주거비 포함)를 부모와 반씩 나누어 부담하고 있음
- ④ 학비 및 생활비(주거비 포함)를 1/2 이상 스스로 마련하고 있음
- ⑤ 학비 및 생활비(주거비 포함)를 모두 스스로 마련하고 있음

14. 부모의 최종 학력

어 머 니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2, 3년제 대학 졸업	⑤ 4년제 대학 졸업	⑥ 석사 졸업
	⑦ 박사 졸업	⑧ 박사 이상	⑨ 모름

아 버 지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2, 3년제 대학 졸업	⑤ 4년제 대학 졸업	⑥ 석사 졸업
	⑦ 박사 졸업	⑧ 박사 이상	⑨ 모름

15. 가족의 경제적 수준

- ① 하            ② 중하            ③ 중            ④ 중상            ⑤ 상

## <부록 2> 한국판 부모기대 부응 척도(K-LPEI)

※ 다음 문항을 읽고, '부모기대'와 '자기수행'의 두 가지 측면에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과정에서 많은 심리적 불편이 느껴지는 경우, 현재 인터넷 창을 종료함으로써 연구 참여를 즉시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모기대: 현재 당신은 부모님으로부터 이러한 기대를 얼마나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 자기수행: 현재 당신은 얼마나 이런 식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1. (1-A) 부모님은 내게 뛰어난 **학업성적**을 받기를 기대하십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6 매우 그렇다

2. (1-B) 나는 뛰어난 **학업성적**을 받고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6 매우 그렇다

3. (2-A) 부모님은 내 **학업 성적**이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해주기를 기대하십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6 매우 그렇다

4. (2-B) 부모님은 내 **학업 성적**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6 매우 그렇다

5. (3-A) 부모님은 내게 **겸손하고 예의 바르**기를 기대하십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6 매우 그렇다

6. (3-B) 나는 **겸손하고 예의 바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6 매우 그렇다

7. (4-A) 부모님은 내게 키 크고 잘생긴 (혹은 예쁜) 사람과 사귀기를 기대하십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6 매우 그렇다

8. (4-B) 나는 키 크고 잘생긴 (혹은 예쁜) 사람과 사귀고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6 매우 그렇다

9. (5-A) 부모님은 내게 누구를 사귀기 전에 부모님의 허락을 구하기를 기대하십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6 매우 그렇다

10. (5-B) 나는 누구를 사귀기 전에 부모님의 허락을 구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6 매우 그렇다

11. (6-A) 부모님은 내게 재정적인 조건이 좋은 사람을 만나보길 기대하십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6 매우 그렇다

12. (6-B) 나는 재정적인 조건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6 매우 그렇다

13. (7-A) 부모님은 내게 남들보다 학업적으로 우수하기를 기대하십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6 매우 그렇다

14. (7-B) 나는 남들보다 학업적으로 우수하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6 매우 그렇다

15. (8-A) 부모님은 내게 연애할 때 학력이 높은 사람을 만나보길 기대하십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6 매우 그렇다

16. (8-B) 나는 연애할 때 학력이 높은 사람을 만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6 매우 그렇다

17. (9-A) 부모님은 내게 부모님과 가문을 빛내주기를 기대하십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6 매우 그렇다

18. (9-B) 나는 부모님과 가문을 빛내주고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6 매우 그렇다

19. (10-A) 부모님은 내가 집 밖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히하기를 기대하십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6 매우 그렇다

20. (10-B) 나는 집 밖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히 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6 매우 그렇다

21. (11-A) 부모님은 내게 책임감이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6 매우 그렇다

22. (11-B) 나는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6 매우 그렇다

23. (12-A) 부모님은 내게 부모님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기대하십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6 매우 그렇다

24. (12-B) 나는 부모님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6 매우 그렇다

25. (13-A) 부모님은 내게 성숙하게 행동하기를 기대하십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6 매우 그렇다

26. (13-B) 나는 성숙하게 행동하고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6 매우 그렇다

27. (14-A) 부모님은 내게 상대의 집안 배경을 고려하여 데이트할 상대를 고르기를 기대하십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6 매우 그렇다

28. (14-B) 나는 상대의 집안 배경을 고려하여 데이트할 상대를 고른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6 매우 그렇다

29. (15-A) 부모님은 내게 조심스럽게 말하고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지 않기를 기대하십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6 매우 그렇다

30. (15-B) 나는 조심스럽게 말하고 남들을 불쾌하게 하지 않는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6 매우 그렇다

### <부록 3> 대학생활 적응 척도(SACQ) 중 개인-정서적응 문항

※ 아래 문항들은 대학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에 관한 것들입니다. 각 문항들을 잘 읽고 최근 당신의 생각과 상태를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 고려하여 9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체크하여 주십시오. **응답 과정에서 많은 심리적 불편이 느껴지는 경우, 현재 인터넷 창을 종료함으로써 연구 참여를 즉시 중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8	9
1	근래에 나는 긴장되거나 신경이 예민해져있다.								
2	최근에 나는 기분이 매우 우울하다.								
3	나는 근래에 피곤할 때가 많다.								
4	홀로 선다는 것, 나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5	나는 최근에 내 감정을 잘 조절할 수가 없다.								
6	나는 최근에 식욕이 좋다.								
7	나는 머리가 아플 때가 많다.								
8	나는 최근 학교상담소나 교외 심리상담기관을 찾아가 도움을 받아야 할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다.								
9	나는 최근에 체중이 많이 줄었다. (혹은 늘었다).								
10	나는 최근 너무 쉽게 화가 나곤 한다.								
11	나는 잠을 잘 자지 못한다.								
12	때때로 생각이 쉽게 뒤죽박죽 되어버린다.								
13	나는 대학에서 드는 비용에 대해 걱정이 많이 된다.								
14	요즈음 나는 건강상태가 좋은 것 같다.								
15	나는 대학생활에서 부딪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굵은 글씨는 역문항

#### <부록 4> 심리적 독립척도(PSI) 중 갈등적 독립 문항

※ 아래 문항들은 부모님과 관계에 관한 것들입니다. 부모님을 머릿속에 그려보신 후 각 문항을 읽어 가면서, 문항들이 당신의 생각이나 느낌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생각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 ————— 매우 그렇다 (5)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체크 하여 주십시오. 응답 과정에서 많은 심리적 불편이 느껴지는 경우, 현재 인터넷 창을 종료함으로써 연구 참여를 즉시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 혀 그렇지않다 ←					매 우 그렇다 →
		1	2	3	4	5	
1	때때로 부모님은 나에게 짐(부담)이 된다.	1	2	3	4	5	
2	나는 부모님과 항상 불화상태에 있는 것 같다.	1	2	3	4	5	
3	내게 있는 문제 중 많은 부분은 부모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4	나는 부모님을 좀 더 신뢰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1	2	3	4	5	
5	나는 부모님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만 한다.	1	2	3	4	5	
6	나는 때때로 부모님에게 꾸지람을 받고 있는 듯이 느껴진다.	1	2	3	4	5	
7	나는 부모님이 나를 마음대로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	1	2	3	4	5	
8	나는 내키지는 않지만 부모님에게 어떤 의무감을 느낀다.	1	2	3	4	5	
9	부모님은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	1	2	3	4	5	
10	종종 나는 부모님이 나를 좀 더	1	2	3	4	5	

	어른으로 해주길 바란다.					
11	부모님에게 가끔씩 화가 난다.	1	2	3	4	5
12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시키실 때, 그 일은 하기 싫다.	1	2	3	4	5
13	부모님의 생각이 아무리 좋은 것일 경우에도 부모님의 생각이기에 듣기가 싫다.	1	2	3	4	5
14	학교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지 못할 때 나는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5	부모님이 나를 부모님 편이 되도록 조종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1	2	3	4	5
16	나는 부모님과 사소한 일로도 언쟁을 한다.	1	2	3	4	5
17	부모님은 때때로 나를 당황하게 한다.	1	2	3	4	5
18	나는 때때로 부모님을 부끄럽게 여긴다.	1	2	3	4	5
19	부모님이 나를 평가할 때면 화가 난다.	1	2	3	4	5
20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때때로 기분 나쁘다.	1	2	3	4	5

<부록 5> 한국판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단축형(K-MC-13)

※ 다음은 평소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 느낌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씩 읽으시면서 예, 아니오 중 하나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한 문제도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 과정에서 많은 심리적 불편이 느껴지는 경우, 현재 인터넷 창을 종료함으로써 연구 참여를 즉시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질문 내용	예	아니오
1	남이 잘 된 것이 매우 부러웠던 적이 있다.		
2	내 뜻대로 하지 못했을 때, 가끔씩 나는 분하게 느낀다.		
3	나에게 무엇을 부탁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끔 짜증이 난다.		
4	내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일을 포기한 적이 있다.		
5	다른 사람들이 격려해주지 않는다면, 간혹 내 일을 처리하기가 힘들 것이다.		
6	나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은 경우가 몇 번 있다.		
7	누구와 얘기하건 간에 나는 항상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8	실수를 했을 때 나는 항상 기꺼이 실수를 인정하려고 한다.		
9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일부러 한 적은 없다.		
10	나는 항상 예의 바르며 심지어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한테도 그렇다.		
11	사람들이 내 생각과 아주 다른 얘기를 할 때에도 지루하게 느낀 적은 없다.		
12	윗사람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발심을 느낀 적이 있다.		
13	용서하거나 잊어버리지 못하고 때로 복수하려고 한 적이 있다.		

※ 굵은 글씨는 역문항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Discrepancies with  
Parental Expectations and  
College Student' s Psychological  
Maladjustment  
: The Mediating Role of  
Conflictual Independence

Subin Lee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discrepancies between parental expectations and actual selves on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maladjustment,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role of conflictual independence in this relationship.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questionnaire research with South Korean college students (N=271). Korean version of Living up to Parental Expectations Inventory (K-LPEI), Personal-Emotional adjustment items from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 Conflictual Independence items from 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 (PSI), Korean version of Marlowe Crowne 13 Items Social Desirability Scale (K-MC-13) were used. The major results from statistical analysis of correlation, regression, and mediation are as follows.

First, perceived discrepancies with parental expectations were positively related to Korean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maladjustment. However, perceived parental expectations per se were not associated with psychological maladjustment.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discrepancies with parental expectations and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maladjustment was fully mediated by conflictual independence from parents. This result indicates that students who perceive high discrepancies between actual selves and parental expectations tend to report low levels of conflictual independence, and be less psychologically adjusted to colleg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erceived discrepancies with parental expectations may induce conflictual emotions (i.e., excessive guilt, anxiety, responsibility, resentment, and anger) in relation to parents, which lead to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maladjustment. Implications for counseling practice and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when college students are suffering from psychological maladjustment associated with their parental expectations,



counselors should examine separately their parental expectations and actual selves. If necessary, counselors can help to reduce the present discrepancies to a realistic level by improving communication reciprocity between parents and their children. In addition, when college students are experiencing psychological maladjustment due to the discrepancies with parental expectations, counselors can decide to implement specific counseling practice which reduces the clients' conflictual emotions toward parents, such as facilitating their psychological individuation from parents.

For future studies, special groups such as college students who are overly living up to parental expectations or living up to extremely high levels of parental expectations should be examined. An examination of college students with various cultural backgrounds is also needed, since it may yield different results from this study. Furthermore, in addition to academic and career areas, further exploration on dating concerns is required when investigating the impact of perceived discrepancies with parental expectations. Additionally, more comprehensive research is needed, which encompasses every aspect of highly mature parent-child relationships, where high levels of intimacy, reciprocal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as well as psychological separation, are achieved. Finally, additional research exploring the causal influence of the perceived discrepancies with parental expectations is needed.

***keywords* : College students, Parents, Expectations, Conflictual Independence, Psychological Maladjustment**

***Student Number* : 2018-22213**